

트리플나인 vs 록밴드…‘오너스컵’ 주인공은?

14일 부산경남 제4경주

4세 동갑내기 라이벌…우승 1순위
석세스스토리·금포스카이도 복병

11월 대통령배의 전초전으로 열리는 제10회 오너스컵(Owners' Cup, GⅢ)이 14일 랫츠런파크 부산경남 제4경주(1600m, 국산 3세 이상)로 열린다.

한국에서 태어난 경주마들만 출전하는 대회다. 다가올 대통령배 출전을 위한 예선전이다. 한국경마를 대표하는 국산마 강자들이 총출동하는 가운데 부경경마에서 출전하는 4마리가 눈에 띈다. 2015년 연도 대표마 '트리플나인'(4세 수말·최병부 마주)과 2015년 오너스컵 우승마 '록밴드'(4세 수말·정영식 마주), 두바이 원정에서 세계 최고의 명마와 대결해 한국마의 우수성을 알린 '석세스스토리'(5세 수말·이종훈마주), 2015년 그랑프리 2위에 빛나는 '금포스카이'(5세 수말·손병현마주) 등이 우승후보다.

이번 대회 최대 관심사는 총상금 7억 원이 걸린 대통령배 우승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출전한 '트리플나인'과 '록밴드'의 경쟁구도다.

4세 동갑내기인 이들인 '평생 라이벌'이란 수식어가 딱 어울린다.



트리플나인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GⅡ)와 오너스컵(GⅢ)에서는 '록밴드'가 우승, '트리플나인'이 준우승을 했다. 반대로 지난해 대통령배(GⅠ)에서는 '트리플나인'이 '록밴드'를 2위로 밀어내고 우승해 실욕했다.

연이어 치러진 경마대회에서 같은 김영관 조교사 소속 조의 경주마가 우승과 준우승을 모두 차지한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올해 대통령배와 그랑프리에서도 맞붙을 가능성이 커 여러모로 이슈의 중심에서 있다.

일단 경기력에서는 '트리플나인'이 '록밴드'보다 앞선다는 평가다. '트리

플나인'도 믿을 구석이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폭발적인 뒷심이 있다. 이번 대회 역시 중위권에서 따라가다가 막판 뒷심으로 우승을 결정지를 타세다. 다만 최근 1800m이상 장거리 경주에 출전했기 때문에 짧은 경주거리에 대한 적응력을 가르는 것이 우승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대통령배 우승으로 연도 대표마로 선정된 '트리플나인'은 대통령배 2연승을 노린다. 2015년 그랑프리 경마대회에서 4위를 차지한 이후 출전한 4번의 경주에서 우승 2회, 준우승 2회로 상승세다.



록밴드

지난해 오너스컵 우승마 '록밴드'는 대회 2연패를 꿈꾼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GⅡ)와 오너스컵(GⅢ)을 연달아 우승하고 대통령배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상승장구였다. 올해는 다리 부상으로 7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다. 공백의 우려는 있지만 직전 1800m 경주에서 4마신(10m)차 대승으로 건재함을 증명했다. 이번에도 선두권에서 우승을 결정지를 타세다. '록밴드'는 2013년 대통령배·그랑프리 제패한 '인디밴드'와 형제마다. 부마 '엑톤파크'와 모마 '플리에' 사이에서 태어난 공통점이 있다. 우수한 혈

통에 '인디밴드'의 근성까지 닮아 우승 가능성이 큰데다, 지구력도 좋다. 이번을 노리는 또 한 마리의 말은 '석세스스토리'다. 두바이 원정을 통해 유명세를 탔다. 기본 능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두바이 원정 이후 2016년 부산 일보배와 부산광역시장배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실전 적응력까지 갖췄다. 2015년 그랑프리에서 2위를 기록한 '금포스카이'는 올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일반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컨디션 조율을 마쳤다. 서울 대표 중에서는 '베스트가이'가 복병이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침착성·마장마술…세계 첫 경주 퇴역 승용마 평가

14일까지 신청…내달 1일·30일 진행
한국마사회, 말 안정성 평가는 처음

한국마사회가 세계 최초로 경주퇴역 승용마 평가대회를 연다.

9월 1일, 30일 2차례 진행되며 총 상금은 5000만원이다. 경주퇴역마의 승용마로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무대다.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다. 말의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는 그동안 많았지만 말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주퇴역마를 대상으로 한 점에 있어서는 세계 최초다.

대회 장소는 랫츠런파크 장수 승마장과 경북 영천 운주산 승마장이다. '대한체육회장이 전국 생체지구력 승마대회' '영천대마기 전국 종합마술 대회' 등 생활체육 대회가 열리는 시기와 장소를 고려했다.

퇴역 후 2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주마 중 승용마로 등록된 더러브렛이 참가 대상이다. 기승자도 참여를 위해 ▲대한승마협회 회원등록을 필한 자 ▲마주 ▲승마지도사 ▲말조련사 등



경주퇴역 승용마 평가대회의 평가항목 가운데 하나인 말의 침착성 테스트를 위해 풍선날리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마사회

의 조건을 갖춰야한다. 평가항목은 마체상태, 침착성, 마장마술, 장애물 등이다. 평가 결과 우수마의 경우, 인증마크(BRT)를 주고 말협동홈페이지(http://studbook.kra.co.kr)에 올릴 예정이다. 대회 우승자에게는 600만원을 준다. 별도 참가비는 없다.

신청 마감일은 14일까지다. 첨부문서의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팩

스(02-589-2579) 또는 이메일(mailbab1@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마필사진은 이메일로 보낸 뒤 송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스피아 홈페이지(www.horsepia.com)를 참조하면 된다.

●경주퇴역 승용마 평가대회를 하는 이유
해마다 국내에서는 1300여 마리의

맛있는 페스티벌 '청춘발광'
12일부터 랫츠런파크 서울

한국마사회 랫츠런파크 서울(본부장 박양태)이 4년 만에 선보이는 야간 경마 시즌을 맞아 8월12일부터 9월3일까지 '맛있는 페스티벌 청춘발광'을 개최한다. LED램프가 은은하게 빛나는 테이블과 의자로 꾸며진 랫츠런파크 서울 관람대 앞 일루미네이션 라운지에서 이벤트가 진행된다.

12일부터, 4주 동안 야간경마일(금토)에 펼쳐진다. 야간경마를 더욱 재밌게 만들거를 다채로운 이벤트가 함께 하는 밤의 일루미네이션 라운지는 한여름 유희마족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할 것이다.

랫츠런파크 공식 페이스북 및 블로그에 참여하고 싶은 사연을 댓글로 접수하고 함께 오고 싶은 가족·친구·연인 등에 내용을 공유하거나, 랫츠런파크 서울 놀라운지에서 진행되는 현장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야간 일루미네이션 라운지 초청객에게는 F&B 교환권과 귀여운 말 인형을 선물로 준 다. 럭키박스를 놓고 벌이는 흥미진진한 우승 경주마 맞추기 'Pick 馬 Up' 이벤트에 참가할 자격도 준다. 김종건 기자

말(馬), 예술과 만나다

박해룡의 '바다로 가자'



〈캔버스에 유채, 44x23cm, 2011〉

포세이돈의 마차를 끄는 말들처럼 해변을 달리는 무리의 질주가 시원한 바람을 몰고 옵니다. 푸른 하늘과 바다, 하얀 구름과 포말이 청량감을 주는 작품으로 도심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해변승마의 매력에 화폭 가득 물결처럼 넘실거립니다. 랫츠런파크 서울 김경희 학예사

마사회, 건전레저 UCC 공모전

31일까지…대학생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목적



한국마사회가 31일까지 '랫츠런파크 대학생 정부 3.0 건전레저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정부3.0 건전레저주간을 맞아 건전레저 버스, 건전레저 홍보관, 건전레저 SNS 포토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선보인다.

이번 공모전은 랫츠런파크의 정부3.0 건전레저 서비스를 홍보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랫츠런파크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이 참여대상이다. 공모주제는 '랫츠런파크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 '랫츠런파크를 건전하게 즐기는 방법'으로 하나를 정해 제출하면 된다.

'랫츠런파크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놀라운지, 마이카드2.0, 시크릿웨이투어, 한국마사회 랫츠런파크가 운영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레저서비스 홍보영상을 제작하면 된다. '랫츠런파크를 건전하게 즐기는 방법'은 건전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는 생각을 담은 캠페인 영상을 만들면 된다. 공모대상은 동영상,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모션그래픽 등 제작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31일 18시까지 제출 완료한 작품이 대상이다.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 가능하다. 팀의 경우 4명을 넘으면 안 된다. 팀별 출품 수에는 제한이 없다. 출품작을 유튜브에 업로드 후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공모전 운영사무국 메일(ock123@kra.co.kr)로 제출하면 된다. 9월 중 수상작을 발표한다.

주제적합성, 홍보가능성, 창의성, 완성도 등이 평가기준이다. 1등 300만원, 2등 150만원, 3등 50만원의 상금이 있다. 수상작은 랫츠런파크 정부 3.0 건전레저 서비스 홍보활동에 적극 활용된다. 김종건 기자

스포츠토토

“EPL 1R 아스널, 리버풀 꺾는다” 50%

축구 승무패 30회차 중간 집계

“레스터, 첼시티 쏘이야” 61%
“슈퍼매치 승자는 서울” 64%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13일(한국시간)부터 15일까지 펼쳐지는 국내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6경기 및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8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축구토토 승무패 30회차 게임을 발매한다.

이번 회차에선 축구팬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EPL 새 시즌 개막전이 관심을 모은다. 첫 판부터 맞붙은 아스널-리버풀을 비롯해 조제 무리뉴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디펜딩 챔피언 레스터티의 경기까지 눈길을 끄는 경기들이 많다. K리그 클래식에선 FC서울-수

원삼성이 시즌 3번째 슈퍼매치가 토토 팬들을 찾아간다.

●“아스널이 리버풀 잡을 것”…50.42%
개막전부터 라이벌 리버풀을 만난 아스널이 50.42%의 지지를 얻었다. 두 팀은 지난 시즌 2차례 만나 모두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첫 대결에선 득점 없이 비겼지만, 2번째 격돌에선 난타전 끝에 3-3 무승부를 기록했다. 올 시즌 특별한 스타선수 영입이 없었던 두 팀인 만큼, 명장으로 꼽히는 아르센 벵거 아스널 감독과 워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의 전술에 따라 승부가 갈릴 수도 있는 경기다. 프리시즌 동안 보여준 두 팀의 전략과 전술에 초점을 맞춘다면 적중의 열쇠를 찾을 수도 있다.

●“디펜딩 챔피언 레스터, 첼시티 누를 것”…60.87%
레스터는 최근

지난 시즌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디펜딩 챔피언 레스터티는 첼시티 원정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됐다. 60.87%의 참가자들이 레스터티의 승리를 점쳤다. 레스터는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커뮤니티 실드에서 1-2로 패했지만, 여전히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약간의 전력 손실은 있었지만, 제이미 바디를 비롯한 주요 선수들과 이적 선수들이 탄탄한 실력을 갖추고 있기에 올 시즌에도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

●63.58%, 서울의 슈퍼매치 승리 예상
올 시즌 2차례 대결에서 모두 비겼던 서울과 수원이 다시 슈퍼매치를 치른다. 전체 참가자의 63.58%는 홈팀 서울, 23.76%는 무승부, 나머지 12.66%는 수원 승리에 투표했다. 올 시즌 성적과 최근 흐름에선 단연 서울이 앞선다. 서울은 포항, 성남, 상

축구토토 승무패 30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11일 오전 9시 현재)		
번호	경기일시	홈 : 원정	홈팀 승	무승부	홈팀 패
1	8/13(토) 19:00	전남드래곤즈 : 인천UTD	57.42%	28.23%	14.35%
2	8/13(토) 19:00	상주상무 : 성남FC	39.40%	30.66%	29.93%
3	8/13(토) 19:00	FC서울 : 수원삼성블루윙즈	63.58%	23.76%	12.66%
4	8/13(토) 20:30	첼시티 : 레스터시티	16.71%	22.42%	60.87%
5	8/13(토) 23:00	번리 : 스완지시티	28.51%	26.09%	45.40%
6	8/13(토) 23:00	크리스탈 : 브로미치	56.21%	26.19%	17.60%
7	8/13(토) 23:00	에버턴 : 토트넘홋스퍼	18.43%	30.70%	50.87%
8	8/13(토) 23:00	미들즈브러 : 스토크시티	30.16%	30.61%	39.23%
9	8/13(토) 23:00	사우샘프턴 : 왓포드	70.38%	17.31%	12.31%
10	8/14(일) 19:00	제주UTD : 광주FC	66.35%	20.18%	13.47%
11	8/14(일) 19:00	포항스틸러스 : 전북현대	17.36%	26.79%	55.85%
12	8/14(일) 19:00	수원FC : 울산현대	15.10%	24.16%	60.74%
13	8/14(일) 21:30	본머스 : 맨체스터UTD	9.13%	11.31%	79.55%
14	8/15(월) 00:00	아스널 : 리버풀	50.42%	28.46%	21.12%

주를 맞아 리그 3연승을 신고했다. 사령탑 교체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난 분위기다. 반면 수원은 제주를 꺾은 뒤 울산과 득점 없이 비겨 연승에 실패했다. 변수는 올림픽대표 차

출로 인한 전력 공백이다. 서울은 박용우와 심상민, 수원은 권창훈이 빠져있어 전력분석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30회차는 13일 오후 6시50분 발매 마감된다.

“삼성2~3점, 두산4~5점 록”

야구토토 스페셜 74회차 중간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12일 벌어지는 2016시즌 한국프로야구(KBO) 세 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토 스페셜 74회차 게임의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전체 참가자의 50.04%는 삼성-두산(1경기)전에서 원정팀 두산의 승리를 점쳤다. 홈팀 삼성 승리 예상은 35.54%로 나타났고, 나머지 14.43%는 양팀의 같은 점수대를 내다봤다. 최종 점수대에선 삼성 2~3점-두산 4~5점 예상(5.67%)이 1순위를 차지했다.

롯데-한화(2경기)전에선 롯데 승리 예상(46.52%)과 한화 승리 예상(40.32%)이 엇비슷하게 집계됐다. 같은 점수대 예상은 13.17%였다. 최종 점수대의 경우 롯데 6~7점-한화 4~5점 예상(6.66%)이 가장 많았다. 넥센-KIA(3경기)전에서도 넥센(43.17%)과 KIA(42.78%)가 팽팽한 지지율을 보였다. 같은 점수대 예상은 14.06%. 최종 점수대에선 넥센 2~3점-KIA 6~7점 예상(6.50%)이 최다였다. 이번 야구토토 스페셜 74회차는 12일 오후 6시20분 발매 마감된다.